

- 주요 뉴스: 미국 8월 PCE 물가 발표, 큰 폭 금리인하의 정당성을 부여할 전망
 -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, 경제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위험이 균형을 이룬 상태
 - 미국 대선 지지율 설문조사,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
 - 이스라엘과 헤즈볼라, 가자전쟁 이후 최대 교전,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도 제기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FOMC 결과 및 경기 연착륙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50bp 금리인하 관련 긍정적 재해석 등으로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는 영란은행의 금리 동결 및 차익실행 등으로 0.3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이 반영
유로화 가치는 0.8% 상승, 엔화 가치는 2.1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침체 회피 가능성과 차익매물 출회 등이 원인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6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3% 상승, 한국 CDS 하락

		9/20일	9/13일	전주말대비			9/20일	9/13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5,702.6	5,626.0	+1.36%	국채 금리 10y	미국	3.74%	3.65%	+9bp
	유럽	514.26	515.95	-0.33%		독일	2.21%	2.15%	+6bp
	중국	2,736.8	2,704.1	+1.21%		영국	3.90%	3.77%	+14bp
	일본	37,724	36,582	+3.12%	CDS 5y	한국	31bp	32bp	-1bp
	한국	2,593.4	2,575.4	+0.70%		중국	60bp	59bp	+1bp
환율	달러지수	100.72	101.11	-0.39%	위험 지표	EMBI+	411	408	+3bp
	유로화	1.1162	1.1075	+0.79%		VIX	16.15	16.56	-2.48%
	엔화	143.85	140.85	-2.09%		WTI유	71.92	68.65	+4.76%
	위안화	7.0470	7.0972	+0.71%	원자재	구리	428.2	417.5	+2.55%
	원화	1,333.0	1,329.6	-0.26%		금	2,621.9	2,577.7	+1.7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8월 PCE 물가 발표, 큰 폭 금리인하의 정당성을 부여할 전망

- 9/27(금) 8월 PCE 물가가 발표될 예정.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, 헤드라인 PCE 물가의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은 0.1~0.2%, 2.2%로 7월(각각 0.2%, 2.5%)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. 한편,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와 영향으로 0.2%, 2.7%를 기록, 전월(0.2%, 2.6%) 대비 보합 혹은 높은 수준 예상
- 이러한 전망이 정확하다면, 인플레이션이 목표(연율 2%)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좀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파월 의장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. 아울러 이는 연준이 9월 FOMC에서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인하를 결정한 점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
- 다만 이러한 상황이 향후 경기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사안. 단기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, 이에 연착륙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추정. 그러나 이로 인해 경기 활성화 기대가 고조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면, 오히려 경제 성장에 역풍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
- 이에 일부에서는 연준의 9월 FOMC 결정이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, 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(Bloomberg Economics). 한편, CME의 FedWatch는 연내 2회(11월과 12월 각 0.50%p, 0.25%p), 내년 5회(1월, 3월, 5월, 6월, 9월 각 0.25%p)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시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, 경제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위험이 균형을 이룬 상태

- 하커 총재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, 이에 금리인하가 시작되었다고 언급. 또한 지금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정제될 위험이 다소 있는데, 이를 피하고 2%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를 원한다고 첨언

■ 로이터 설문조사, 연준은 11월 및 12월 각각 0.25%p 금리인하에 나설 전망

- 이코노미스트 대상 조사에 따르면, 107명의 이코노미스트 가운데 다수의 응답자들은 11월과 12월 각각 0.25%p 금리인하(연내 0.50%p)에 나설 것으로 예상. 한편 내년과 `26년 각각 총 1.00%p, 0.50%p의 추가 금리인하를 관측

■ Goldman Sachs와 BofA, 향후 증시 전망 관련 다소 상이한 의견 피력

- Goldman Sachs의 루브너 글로벌 증시 관리 이사는 미국 대선, 기술적 요인 등으로 증시에 일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. 다만 그 이후 연말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. 하지만 BofA의 하트넷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하로 증시에 버블이 발생할 수 있기에 채권 혹은 금 매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
- 한편, JPMorgan의 다이먼 회장은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연착륙 달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

■ 미국 대선 지지율 설문조사,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

- CBS가 18~20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, 전국 유권자 3,129명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2%,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%를 기록. 7개 경합지역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51%를 기록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(49%)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

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, 가자전쟁 이후 최대 교전.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도 제기

- 이스라엘은 자국 접경지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레바논 내 헤즈볼라를 공격했지만, 헤즈볼라는 이에 대한 반격을 지속. 또한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 이라크이슬람저항군(IRI)도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. 국제사회는 무력 충돌이 심화되면서 양측의 전면전 확대 가능성을 우려

■ 영국 8월 소매판매, 예상치 상회. 양호한 날씨 및 여름철 할인 판매 등에 기인

- 8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.0% 증가하여 7월(0.5%) 및 예상치(0.4%) 대비 높은 수준. 이는 정치권 불안, 재정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날씨와 여름철 할인 판매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었기 때문. 상대적으로 온라인 부분이 크게 증가했으며, 항목별로는 의류 및 식품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2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·애틀랜타 연은 총재·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발언
- 미국 9월 S&P 글로벌 종합 PMI, 유로존 9월 HCOB 종합 PMI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금리인하에도 상승한 미국 국채수익률, 차입비용 감소 효과를 제한 - WSI

(The Rate Cut Happened. Not All Borrowing Costs Are Going Down.)

- 금리인하에도 최근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오히려 상승. 이는 10년물 국채수익률이 현행 연방기금금리보다는 투자자의 미래 금리 전망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. 모기지, 회사채 등 대다수 부채의 금리를 결정하는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상승한다면, 이는 연준이 국내 차입비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음을 시사
- 한편,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병존. 일각에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으면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.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금리인상의 후행효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6개월 내에 10년물 국채수익률이 3% 미만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

■ 연준의 금리인하, 증시의 약세장 진입 회피 가능 여부는 불확실 - WSI

(Sorry, the Fed Can't Save Us From a Bear Market)

- 연준이 9월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시장 기대와 달리 주가의 큰 폭 하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. 실제로 '07년에도 50bp의 첫 금리인하가 시행되고 잠시 주가가 급등했으나 이후 경기침체가 시작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. 이는 최근 금리인하 사이클 및 증시 상황과 유사
- 현재 미국 경제가 단기간 내에 위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은 편. 그러나 높은 증시 밸류에이션, 대규모 신용, 중국의 경기 둔화, 전세계 정부 부채 문제 등 다양한 하방 요인이 존재. 아울러 증시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금리인하 속도가 아닌 경제성장 전망(Goldman Sachs)

■ 중국 정부의 양호한 미래 산업 육성, 경기둔화 불구 미온적 부양책 초래 - 블룸버그

(Why China's Sluggish Growth Isn't Rattling Xi Jinping)

- 오랜 기간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은 과거와 달리 정부차원의 강력한 부양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.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
- 시진핑 주석이 경제성장을 위해 강조하는 첨단 제조, 하이테크 제품, 친환경 및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고성장으로 경기부양 필요성 상대적으로 감소. 아울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 시, 이로 인한 중국경제 압박 강화(관세인상 등)를 대비하여 경기부양책을 아끼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

■ **노동시장 반영한 통화정책 결정, 이민자 유입 효과를 고려할 필요** - Financial Times
(Immigration and job creation)

- 이민자 유입 지속 및 이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인구 증가는 실업률 상승을 피하기 위한 일자리 증가 수준을 높이는 결과 초래. 한편 금년 7,8월 신규 일자리 수는 작년에 비해 감소했는데, 이는 실제 노동시장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나쁜 상황일 수 있음을 의미. 이에 연준은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
- 이민자 증가는 과열된 노동시장에서 임금 인플레이션 없이 높은 노동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물가안정 유도에 기여. 그러나 향후 이민자 수 감소와 함께 추가 고용창출이 어려우면, 연준의 금리인하는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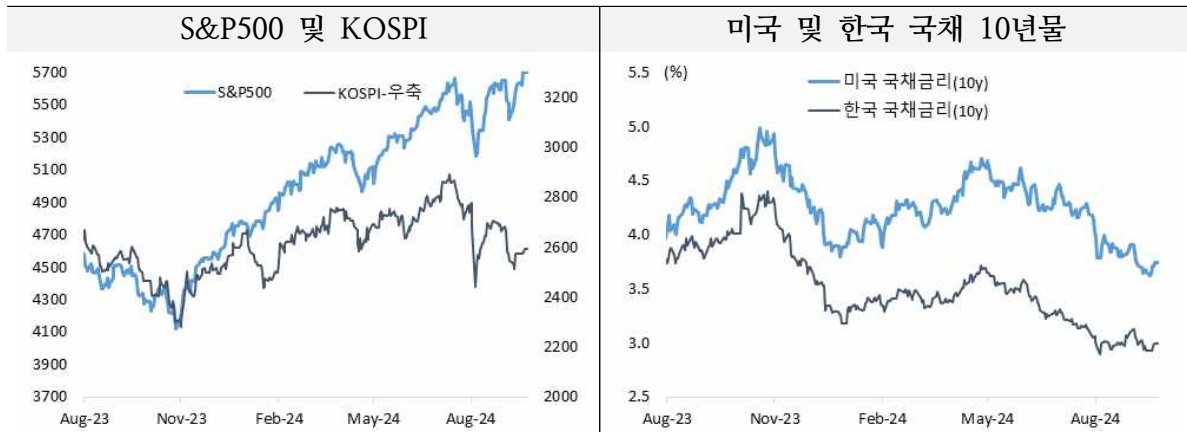
■ **미국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, 유권자 지지에도 시장 왜곡재정 악화 유발할 소지** - WSJ
(Voters Love the Policies That Economists Love to Hate)

■ **EU의 경제 발전, 외교정책과 역내 경제 및 산업정책의 통합이 요구** - Financial Times
(Why Europe needs a foreign economic polic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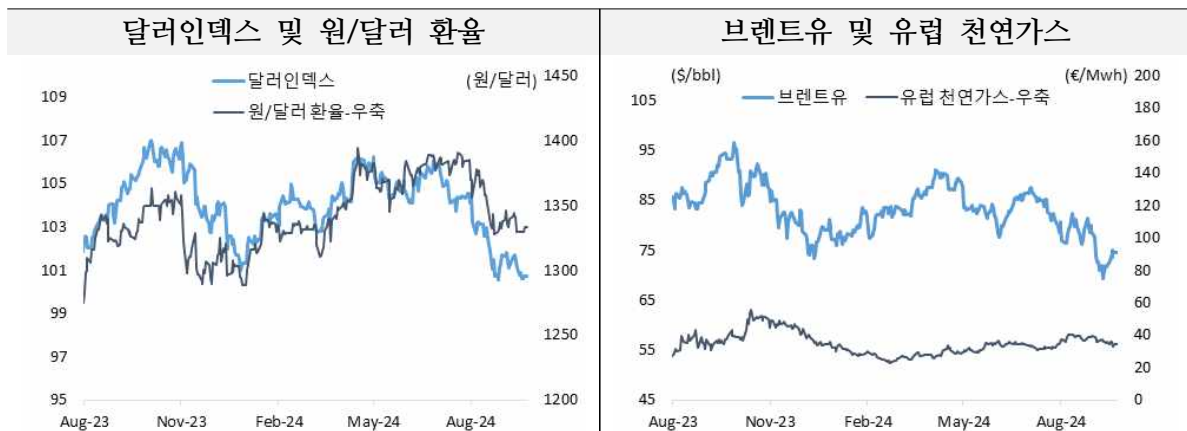
■ **중국 경제, 당국이 동일 정책 고수할 경우 회복은 기대난** - 블룸버그
(The Game Isn't Over for China But It Is 'Garbage Time')

■ **중국 경제의 부진, 장기적으로 미국 및 전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** - 블룸버그
(When Bad News for China Is Bad News for Al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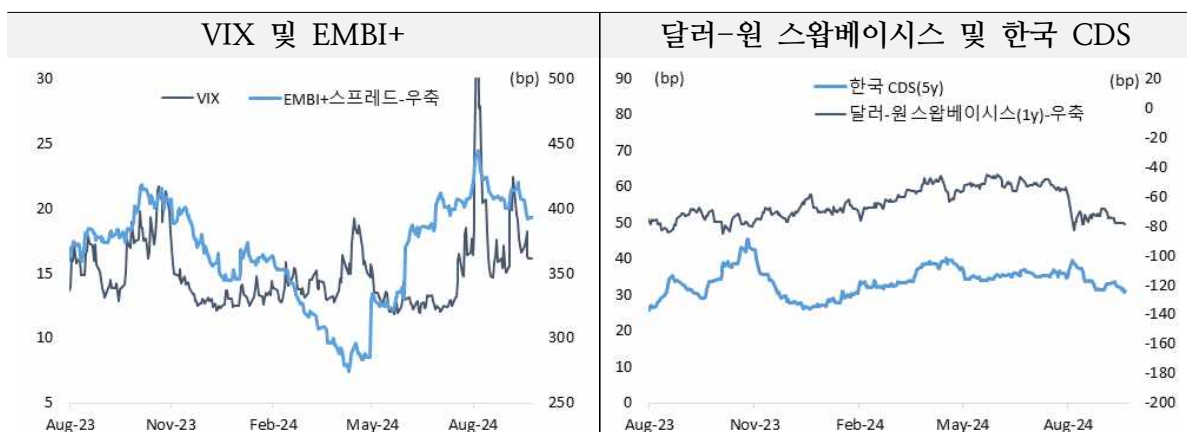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